

 POSRI 보고서

지구 반대편, 라틴 아메리카 바로 알기

오성주 수석연구원, 글로벌연구센터 (supremo9@posri.re.kr)

[목 차]

1. 라틴 아메리카 소개
2. 오늘날 중남미 국가들이 가난한 이유
3. 중남미 경제의 문제점
4. 중남미 정부 성향에 대한 이해
5. 한국 기업의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- 라틴 아메리카는 과거 대부분의 지역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아 같은 문화를 공유하며, 오늘날 멕시코는 경제적으로 북미에 편입
 - 라틴 아메리카는 콜럼버스 발견 전부터 이미 문명 국가가 존재해 왔으며, 현지 토착민들과 유럽의 백인 문화가 접목하여 오늘날 독특한 문화를 형성
- 오늘날 중남미 국가들이 가난한 이유는 1) 근대화 과정에서 잘못된 경제 정책, 2) 쿠데타나 독재 등 정치 불안이 산업 발전 저해, 3) 재정 적자와 외화 부족으로 취약한 경제 구조 등에 있음
 - 해방 후, 경제 및 산업 구조를 감안, 수출 확대보다 수입 대체 산업화에 주력하였으나,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잘못된 개입으로 경쟁력 약화
 - 잦은 군부 쿠데타, 독재 등 정치 불안이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 유입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
 - GDP 대비 과도한 정부 지출 등 적자 재정 운영도 대외 부채를 증가, 외환 부족으로 금융 위기 등에 구조적으로 취약
- 현재 중남미는 1차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가장 큰 문제로, 산업 구조 개혁의 시기를 놓쳐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며, 폐쇄적인 경제공동체 운영도 수출 시장 확대에 제약
 - 주요 수출 품목 대부분이 원유, 철광석, 구리 등 원자재 중심이며, 브라질 등은 경제 호황기에 산업 강화 정책을 시도하였으나 실효성 미미
 - 남미공동시장(Mercosur)은 회원국의 개별적인 FTA 협상을 금지하는 한편, 회원국 간에도 통상 마찰이 심해, 사실상 경제 블록으로서 기능을 상실
- 2000년대 이후 중남미 주요국 중 콜롬비아를 제외하면, 좌파 성향 정부가 대세이며, 이들의 장기 집권 비결은 동 시기에 이룩한 높은 경제 성장임
 - 브라질 룰라, 칠레 바첼렛 및 우루과이의 바스케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집권 기간 연장에 성공하였으나, 이는 체질 개선의 결과가 아닌 글로벌 원자재 호황에 편승한 시운 때문이라는 평가도 존재
- 현지 진출하려는 기업은, 경제 분석 외에도 다양한 이해가 필요하며, 경제 구조 특성 상, 투자 시기도 매우 중요함. 또한, 확실한 사업 의지를 갖고, 현지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
 - 중남미는 한-일 관계와 같이 유사한 문화에도 국가간 성향이 달라, 사업 접근 방식도 나라마다 달리할 필요가 있음
 - 산업 구조 특성 상, 향후에도 단기 성장과 장기 침체의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 시기도 신중한 선택이 요구됨

1. 라틴 아메리카 소개

□ 라틴 아메리카는 유럽의 라틴 국가인 스페인, 포르투갈, 프랑스 등의 지배를 받아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중남미 국가들을 통칭

○ 라틴 아메리카는 스페인의 후원으로 콜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,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짐

- 스페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, 스페인이나 이베리아 반도를 따서 ‘이스파노아메리카(Hispanoamérica)’, ‘이베로아메리카(Iberoamerica)’로 불림

· 이베로 아메리카 정상회의: 1991년부터 매년 스페인, 포르투갈과 과거 이들의 식민지였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 22개국 정상이 모여 국제회의를 개최함

※ 회원국: 아르헨티나, 안도라, 우루과이, 에콰도르, 엘살바도르, 쿠바, 과테말라, 코스타리카, 콜롬비아, 스페인, 칠레, 도미니카 공화국, 니카라과, 파나마, 파라과이, 브라질, 베네수엘라, 페루, 볼리비아, 포르투갈, 온두라스, 멕시코 (준회원국: 적도기니, 필리핀, 푸에르토리코)

○ 그러나 신대륙 ‘발견’은 유럽 관점이며, 이미 오래 전부터 아즈텍, 마야, 잉카이라는 우수한 문명을 가진 국가들이 존재

- 제 3자적 관점에서는, 콜럼버스의 신대륙은 개척을 의미하는 ‘발견(descubrimiento)’이 아닌 서로 다른 문화간의 ‘만남(encuentro)’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견해도 존재

- 또한, 오늘날 현지 주민들을 스페인 정복 시대 부르던 경멸적 의미가 담긴 ‘인디오(indio)’가 아닌 토착민이라는 의미의 ‘인디헤나(indigena)’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함

□ (지정학적) 라틴아메리카는 1848년 미국이 영토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리오그란데 강을 따라 국경을 정하면서 오늘날의 경계가 확정

○ 미국-멕시코 전쟁(1846~1848)에서 멕시코가 패하여 과달루페 히달고 조약이 맺어지면서 오늘날 영토가 정해짐

- 멕시코는 이 조약으로 오늘날 미 서부 주인 캘리포니아, 아이다호, 와이오밍, 네바다, 유타, 콜로라도, 애리조나, 뉴멕시코, 텍사스 등을 할양함

· 리오그란데 강(Rio Grande): 콜로라도 주에서 발원하여 뉴멕시코주와 텍사스주를 따라 흐르는 강이며,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따라 멕시코만으로 흘러감. 멕시코 지명으로는 리오브라보 강(Río Bravo del Norte)

□ (경제적) 1994년 NAFTA(북미자유무역협정)가 출범하여 멕시코가 미국·캐나다와 같은 경제 공동체가 되면서, 멕시코는 북미로 재편입

○ 오늘날 멕시코의 NAFTA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, 특히 미국에 수출의 80%, 수입의 50% 이상을 의존

- 과거 미국과의 국경 지역에 ‘마킬라도라(maquiladora)’라는 보세 가공 무역으로 제조업이 성장. 현재 마킬라도라는 멕시코 전역으로 확대 추세
- 멕시코는 NAFTA로 인해 과거 몇 번의 외환 위기를 극복하였으나, NAFTA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항상 멕시코 경제에 ‘양날의 검’으로 작용

○ 멕시코는 향후에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적 편의와 목적에 따라 북미와 중남미의 경계를 지속 넘나들 것으로 예상

- 멕시코는 OAS(미주기구) 참석 시, 남미 국가들과 대립하는 미국에 대해 다소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으나,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등에서는 서방국들에 대해 중남미와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입장
- 반면, 남미 국가 불릭인 남미공동시장(Mercosur)이나 남미국가연합(Unasur)에는 참여하지 않고, 이와 경쟁 관계에 있는 태평양동맹(Alianza Pacifico)에는 참여하여, 역내에서 복잡한 관계를 구축

※ 종종 국제 기관이나 현지에서도 멕시코의 지역적 구분을 두고 논란이 있으며, 사안에 따라 중남미에 편입시키거나 제외시킴

<표 1> 중남미 주요 국가 지표 비교

	아르헨티나	브라질	칠레	콜롬비아	베네수엘라	멕시코*
면적(km2)	2,780 (8위)	8,516 (5위)	756 (38위)	1,142 (26위)	916 (33위)	1,973(14위)
인구 (백만 명)	42.7	202.8	18.0	48.0	30.2	118.4
명목 GDP (US\$ 10억)	557	2,177	257	378	336	1,296
1인당 GDP (US\$)	13,334	10,775	14,465	7,760	10,892	10,471
수출 (US\$ 10억)	72.1	225.1	76.6	54.8	73.4	397.5
수입 (US\$ 10억)	62.9	229.0	68.1	64.0	47.0	400.0
GDP대비 수출 (%)	12.9%	10.3%	29.8%	14.5%	21.8%	30.7%

자료 : 포스코 경영연구원 종합

2. 오늘날 중남미 국가들이 가난한 이유

□ 20세기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잘못된 경제 정책의 선택과 산업 구조 재편 실패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고 일부는 오히려 후퇴

○ 산업화 초기, 아르헨티나·브라질 등 국토가 크고, 부존 자원과 인구가 많은 국가들은 대외 수출 확대보다는 수입 대체 산업화에 더 집중

- 경제 구조 상, 내수 소비가 많고 지속적인 인구의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, 생필품 등 수입 대체 산업의 육성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
- 아르헨티나는 과거부터 대규모 플랜테이션 제도를 운영하여, 농·축산물 등은 일찍부터 산업화가 되었으며, 해당 품목의 수출을 통해 1900년대 초 이미 세계 7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

※ 1950년대는 중남미뿐만 아니라 아시아 등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많은 국가들이 강대국 경제에 다시 종속될 수 있는 수출 산업보다 자급 자족을 위한 내수 육성 산업에 더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함

○ 그러나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, 국산품 강제 구매 등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해당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오히려 도태시키는 결과 초래

- 아르헨티나는 1차 세계 대전과 대공황의 여파로 국내 경제가 침체되면서 기반 산업이 위기. 때마침 군부의 등장으로 기간 산업 국유화 및 강력한 정부 주도의 투자를 통해 공업 국가로 변모를 시도함
- 그러나 이러한 정부 지원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고, 퍼주기식 예산 낭비만 가져오면서 산업이 도태, 국내 실업률과 대외 부채만 크게 증가
- 브라질의 경우, 최근까지도 에너지·조선 등에서 내수 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 부품 사용 의무, 정부 국산품 구매 할당 등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으나, 이에 부담을 느낀 해외 기업들이 투자를 철수하는 역효과

※ 과거 남미 국가들이 수입 대체 산업화에 집착한 또 다른 이유는, 대공황을 전후하여 남미의 1차 산품 수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임. 이로 인해, 남미에서는 당시 종속 이론이 크게 주목 받음

□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에도, 빈부 갈등, 잦은 쿠데타, 독재 정권의 등장 등으로 인해 정치 불안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,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 유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

○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식민 지배→독립→쿠데타→독재→늦은 민주화 등 근·현대사에서 오랜 기간 시련을 겪음

- 브라질, 아르헨티나, 베네수엘라, 칠레 등 거의 모든 중남미 국가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동일한 시련을 겪음 (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와 유사)
- 군사 쿠데타나 독재가 지속되었던 반면, 대부분이 한국과 같은 고도의 경제 성장을 경험하지는 못함.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제 성장은 정체되었으며, 동 기간 투자가 크게 줄면서 산업화가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
- 칠레의 경우, 예외적으로 피노체트 독재 시기(1974~1990)의 경제 성장률이 아옌데 정권(1970~1973)때보다 평균 2~2.5%p 정도 높으나, 이는 피노체트 정권이 당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적극 수용한 결과이며,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음

□ GDP 대비 과도한 정부 지출이 재정 적자와 대외 부채를 증가시키고, 경상 적자 심화 시, 외환 부족으로 금융 위기에 구조적으로 취약

○ 특히,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, 정부 지출 과다에 따른 재정 악화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현재도 외환 위기가 임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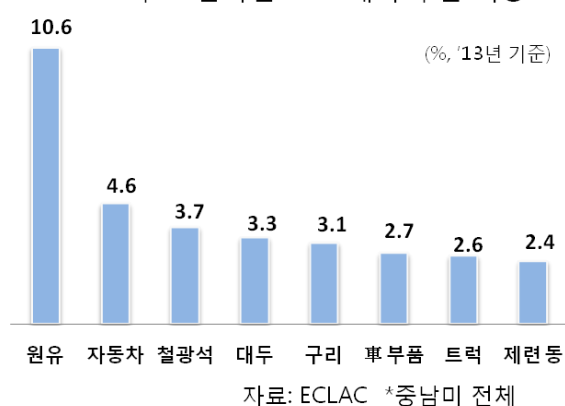
- 베네수엘라의 경우, 정부 세수 42%, 수출 84% 및 외화 수입의 96%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데, 세계적인 低유가가 지속되면서 경상 적자 확대로 경제에 치명타
- 반면, 국내에는 소비재 산업들의 생산 기반이 거의 없어 생필품 수입에 따른 수입 물가 급등과 물건 품귀 현상 등으로 일반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
- 아르헨티나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작년 미 벌처 펀드가 매입한 채권에 대한 배상 문제로 미 법원과 갈등까지 겪으며, 선택적 디폴트 위기에 빠짐
- ※ 과거 전 세계를 강타한 오일 쇼크로, 중남미는 경제 부진과 자본 이탈로 수 차례 외환 위기가 발생. 특히, 1990년대 후반까지 高 환율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악몽을 겪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시 경제 안정에 실패함

3. 중남미 경제의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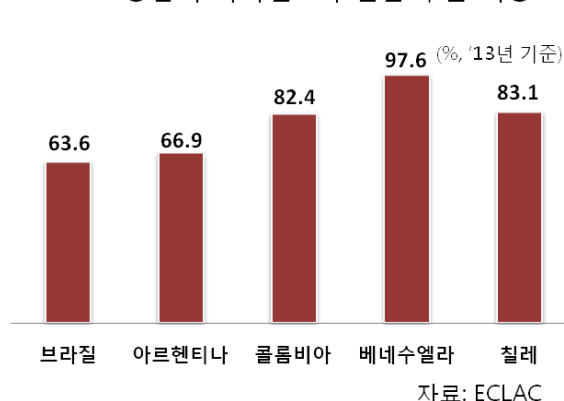
□ 현 중남미 경제 구조는 1차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문제

-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칠레 등 주요국의 수출 품목 대부분이 원유, 철광석, 구리, 대두 등 1차 산품 중심
- 특히, 베네수엘라의 경우, 원유 등 1차 산품 수출 비중이 97.6% 달하며, 브라질, 아르헨티나 등도 6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의존도가 매우 높음
- 유일한 제조업인 자동차와 車 부품 등도 브라질, 아르헨티나 등 주요국간 역내 상호 수출입 비중이 높아, 한 쪽 경제가 외부 충격을 받으면 다른 쪽으로 쉽게 전이되는 취약한 상황

<표2> 주요 품목별 GDP 대비 수출 비중



<표3> 중남미 국가별 1차 산품 수출 비중



□ 글로벌 금융 위기 전, 세계 원자재 수요 급증에 따른 경제 호황기에 산업 구조 개혁이 필요하였으나, 골든 타임을 실기(失機)

- 브라질은 물라 정부 시절, 거시 경제의 안정을 바탕으로 기술력 제고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으나, 실제 성과는 미흡

- 산업기술무역정책(PITCE: 2004~2008), 생산개발정책(PDP: 2008~2010) 등을 통해 생산적 투자를 장려하고, 제품 경쟁력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지원 노력
- 반면,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의 과도한 기술 이전 요구나 자국 부품 사용 의무(Local Content) 규정 등으로 인해 투자 매력도가 낮아 진출 유보
- 호세프 정부 들어 신산업정책(PBM: 2011~)으로 통합 계승되었으나, 이후 브라질 경기 침체로 유명무실. 최근 일부 규정을 바꾸는 등 개선 노력

○ 아르헨티나는 오히려 국내 진출한 기업들에 대해 가격 통제나 수출세 부과 확대 등 경영 간섭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투자에 역효과를 초래

- 스페인 Repsol의 자회사였던 YPF(원유 상공정)의 경우, 현지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신규 광구 개발권을 포기하고 생산 규모를 줄이자, 아르헨티나 정부가 강제 국유화를 단행
- 작년 9월, 기업의 생산·판매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까지 강행함에 따라, 외국인 투자는 더욱 축소될 전망
- ※ 칠레도 구리에 편중된 산업 구조 개혁에는 어려움이 있으나, 원자재 호황기에 정부 지출을 통제하고, 위기에 대비한 비축 펀드 등을 운영하여 경기 침체기에 유연하게 대응

□ 남미공동시장(Mercosur) 등 경제 공동체의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해 무역 품목 및 수출 시장 확대에 한계

○ 남미공동시장은 중남미 경제의 67%를 차지하고 있으나, 회원국과 다른 국가간 개별적인 FTA를 금지하고 있어 수출 시장 확대에 어려움

- 회원국마다 교역 국가 및 품목별 유·불리가 달라 실제 FTA 체결까지 난항. 현재 브라질은 이집트, 이스라엘, 팔레스타인 3개국과만 협정 체결
- 회원국: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우루과이, 파라과이에 이어 2012년 베네수엘라 가입
- 또한, 같은 회원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간에도 통상 마찰이 빈번하고, 상호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 경제공동체로서 역할이 마비
- ※ 반면, 정치적 동맹국인 베네수엘라를 가입시키기 위해, 이에 반대해 온 파라과이의 회원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는 등 정치공동체 역할에 더 치중

4. 중남미 정부 성향에 대한 이해

□ 현재 중남미는 콜롬비아를 제외하면, 주요국 모두가 좌파 성향

- 작년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, 최근 칠레와 우루과이 대선에서도 좌파 연합의 전직 대통령이 모두 승리하여 재취임함에 따라 당분간 중남미에서 좌파 강세는 지속될 전망
 - 연임이 가능한 브라질과 달리, 칠레와 우루과이는 대통령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어, 전직 대통령들이 한 차례 대선을 건너뛴 후, 출마하여 당선
 - 칠레: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이 중도좌파 연합인 Nueva Mayoria를 구성, 선거에 승리함에 따라 '14년 3월 재취임,
 - 우루과이: 타바레 바스케스 전 대통령은 중도좌파 연합인 Frente Amplio를 조직, 결선에서 50.6% 득표로 승리하여, 올해 3월 재취임

<표4> 중남미 국가별 정부 성향

강경좌파	좌파	중도(좌)파	우파
베네수엘라	니카라과	브라질	콜롬비아
볼리비아	코스타리카	아르헨티나	파나마
쿠바	에콰도르	칠레	파라과이
	엘살바도르	페루	과테말라
		우루과이	온두라스
			멕시코*

자료: 국내외 언론 종합 ('14년 말 기준)

- 이들의 장기 집권 비결은 과거 임기 중인 2000년대 중반까지 이룩한 높은 경제 성장이었으며, 차기 정부는 이후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다소 고전
 -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두 번의 재임 기간 중 고도의 경제 성장을 통해 브라질을 GDP 기준 세계 7위로 올려 놓으며, 중남미 전체 지도자로 추앙. 이 덕분에 후계자였던 호세프 현 대통령은 대선에서 손쉽게 승리
 - 칠레 바첼레트 대통령은 과거 재임 기간 평균 3.8% (2008~2009년 금융 위기 포함), 우루과이 바스케스 대통령은 재임 중 4.6%의 경제 성장을 보임
 -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경제 구조 개혁이나 체질 개선의 결과가 아닌, 글로벌 경기 호황에 따른 세계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편승한 덕분이었다는 평가도 존재

5. 한국 기업의 시사점

□ 중남미는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, 현지 진출 시, 경제 분석 외에도 해당국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

○ 특히, 중남미 전체를 하나의 문화로 보거나,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개별국 하나 하나에 대한 분석이 중요

- 과거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지고, 유사한 역사를 갖고 있어도, 브라질은 인종적 다양성과 외부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, 아르헨티나는 백인 중심이며, 그 문화적 우월성과 자부심으로 인해 다소 폐쇄적인 성향을 보임
- 자원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들간에도, 대통령이 원주민이거나 이들을 지지 기반으로 집권한 볼리비아, 베네수엘라는 백인이 지배하고 있는 아르헨티나, 멕시코 등과는 권력 구조가 달라 사업 접근 방식도 다를 필요
- 한국-일본 과거사 문제와 같이, (역내) 칠레-페루, 브라질-아르헨티나 (역외) 미국-쿠바, 영국-아르헨티나 등도 민감한 이슈가 있어, 인접국과 사업관계가 엮일 시,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

□ 중남미는 산업 구조 특성 상, 글로벌 경기 Cycle 변화에 따라 단기 성장과 장기 침체의 패턴을 반복해 온 만큼 주의 필요

○ 현지 사업 진출 시, 사업 타당성과 시장 분석 외, 최적의 투자 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 필요

- 중남미 외환 위기는 그 원인을 두고, 해외 자본이나 미국의 음모론에서부터 온갖 추측과 분석이 난무하지만, 결과적으로 외부에 취약한 산업 구조로 인해,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외환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음
- 이로 인해 브라질은 영원히 날지 못하는 치킨의 비행(Chicken Flight)에 종종 비유되며, 아르헨티나의 외환 위기도 10년을 주기로 반복된다는 시장 우려 존재
- 중남미 많은 국가들은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, 현지화 가치가 급락하는 경우가 잦으며, 이 경우, 공식 환율 외에도 암시장을 통한 비공식 환율과의 격차로 인해, 외국 기업은 환 손실에 이중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음

□ 중남미 좌파 정부에 대해서는 모두 서방국이나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것이 아닌 만큼 확실한 사업 의지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

○ 최근 중남미에서 유례없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정부 대부분은 해외 자본 유치와 시장 개방에 오히려 적극적이었음

- 퇴임 시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였던 브라질 룰라(80%), 칠레 바첼렛(84%), 우루과이 바스케스(80%) 정부 모두 외국 자본에 대해 우호적이었으며, 퇴임 시까지 親 시장주의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
- 반면, 베네수엘라, 볼리비아, 아르헨티나 등은 서방 국가들과 다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, 이들 국가 진출 시에는 철저한 분석 필요
- 특히, 아르헨티나는 현 페르난데스 정부가 강경 좌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, 작년 하반기 미 벌처 펀드가 구매한 채권에 대한 배상 판결을 놓고 미 법원과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, 양국간 갈등으로 관계가 악화

[참고자료]

[보고서]

한-대서양 중남미 경제협력센터, “중남미 투자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” 2014.12

오성주, “룰라 대통령 전·후 브라질 산업 구조 변화”, 포스코경영연구원, 2013. 5

오성주, “브라질, 경제 구조 변화 시급하다”, 포스코경영연구원, 2013. 10

오성주, “중남미 투자 환경과 사례 - 친디아플러스” 포스코경영연구원, 2015. 3

[홈페이지]

IMF (www.imf.org)

World Bank (www.worldbank.org)

IDB (www.iadb.org)

Economic Commissi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(www.cepal.org)

IHS Connect (connect.ihs.com/home)

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(snuilas.snu.ac.kr)

KOTRA (www.kotra.or.kr)